

위기의 농가, 지속가능성 확보... '경영안정정책' 확충해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경영위험 대응 논의와 시사점' 현안분석 리-우 전쟁·기상이변·금리인상 등 외부요인 변동성 농가경제 위협 美 평균수입 적용 수입보전·日 농업경영수입보험 등 안정책 참고도

국내 농가의 경영안정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빈번한 기상이변,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등 대외 환경 조건은 농가가 통제하기 어려워 정부가 경영안정정책을 확충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경영위험 대응 논의와 시사점' 현안분석에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적응에 따른 민

간소비 회복, 원유와 곡물가격 상승, 환율 급등 등의 외부요인의 변동성이 농가경제의 변동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가시지 않은 지난해 농가교역조건지수(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만해도 86.7(2015=100)로 외부요인에 큰 영향을 받았다. 연구원은 특히 개별 농가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사전 대응하기가 어려워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농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

명했다. 그러나 국내 기존 농업경영위험관리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 경영안정제도는 품목 단위로만 운영되고 있어 다작목 소량 재배 농가를 보호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내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가격하락이나 생산비 상승에는 대응할 수 없다. 물론 정부가 이를 대비해 운영하는 수입보장보험이 있지만, 손실 파악이 어려워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사전관리 방식인 시장격리나 출하 조절은 가격 하락 위험에만 대응하고 있을 뿐, 그 한계가 뚜렷하다. 연구원은 흔히 농가 지원책으로 알려진 비료 가

격 인상 차액 지원, 면세유, 영농기자재 부가 가치세 영세율 등도 농가재 공급자에게 혜택이 귀속되고 있어 효율적인 지원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등 한국이 참고할 만한 경영안정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은 가격손실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경영안정 제도는 수입을 보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손실파악이 어렵지만 미국은 농업경영체가 제출한 실제 생산·소득 자료를 사용하거나 지역 평균 가격 또는 평균수입을 적용해 수입 보전이 이뤄지고 있다. 가격손실보상은 작물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데 미국 농가지원원이 운영하는 비보험 방식의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다.

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은 농작물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데, 보험방식과 적립방식으로 구성됐다. 보험방식은 대규모 손실을, 적립방식은 소규모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 피해가 발생하면 적립금이 먼저 인출되고 이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연구원은 이 같은 타국가의 사례들을 들어 국내 농가의 경영안정정책을 확충해, 농업인 스스로 경영위험 관리수단을 선택하도록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끝으로 "농업경영안정제도가 시장을 왜곡하지 않은 선에서 기존 경영안정제도 외에 농가 단위 농업수입 또는 소득을 직접 보전하는 정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아르헨티나, 11월 22일 '김치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aT, 국가 단위 첫 사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아르헨티나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한국이 김치 중추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주 정부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을 공식기념일로 제정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이번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은 2021년 7월에 막달레나 솔라리 칸타나 상원의원이 처음 발의, 2021년 10월 연방 상원 분회의와 현지시간 지난 5일 연방 하원 분회의의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김치의 역사 및 우수성과 함께 한국이 김치의 중추국이며 2013년 유네스코가 김치 준비·보존과정인 김장을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고 명시하고, 매년 11월 22일을 아르헨티나 '김치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치의 날(11월 22일)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2021년부터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를



김춘진(왼쪽 네 번째) aT 사장이 아르헨티나 '김치의 날' 제정 추진 등에 기여한 한보화(왼쪽 세 번째)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원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aT 제공>

포함해 캘리포니아·뉴욕·버지니아·미시간·텍사스 주 등 미국 내 10개 주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선포됐고, 올 6월 남미 브라질 상파울루시에서도 '김치의 날'이 제정·선포됐다. 오는 11월 영국 런던 킹스톤어폰템스 왕립구에서 유럽 최초로 '김치의 날'이 제정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김춘진 aT 사장은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가 '김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첫 번째 국가가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남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김치의 날'을 확산시켜 김치 중추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농협 산지유통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산지유통 활성화 방안 모색 등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6일 농협 변산수련원에서 전남·광주농협 산지유통관리자협의회 회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산지유통 전문화과정 ▲현장 학습 ▲활성화 방안 모색 ▲원예농산물 판매달성을 위한 결의대회 등 순서로 진행됐다. 전남·광주농협 산지유통관리자협의회는 관내

농협과 조공법인의 전문인력(49개소, 81명)으로 구성됐으며, 농산물 생산지도, 품질관리, 상품기획, 마케팅 등 전남 농산물 유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도순 관리자협의회장은 "협의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전남 농산물의 유통 혁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산지유통 전문 인력을 육성해 농산물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

'복숭아꽃 필 무렵 이상저온'...제철 복숭아 지난해보다 비싸다

7월 전년비 최대 22% 상승

제철을 맞은 복숭아의 가격이 작년보다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7월호 과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백도(상품)의 도매가격은 2만~2만4000원(4kg) 선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9600원에 비해 최대 22% 상당 높은 수준이다. 천도계 복숭아의 일종인 선프레 복숭아는 10kg

당 2만8000~3만2000원 선으로 1년 전(2만6600원)보다 최대 20% 상당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복숭아 가격이 오른 것은 올해 복숭아 생산량이 1년 전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생선이 줄면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다. 연구원은 복숭아꽃이 필 무렵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 지난달 8~15일 우박까지 내리면서 복숭아의 생육이 전년에 비해 부진하다고 밝혔다. 여름철 또 다른 제철 과일인 포도의 가격은 품종

에 따라 가격 전망이 엇갈렸다. 거봉과 캠벨얼리의 경우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이달 도매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최대 13.7%, 12.1%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사인머스켓은 공급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19.0~29.1%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사인머스켓 도매가격은 2kg당 2만8000~3만2000원으로, 거봉(3만~3만4000원)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비아농협, 명진고등학교에 쌀 1000kg 전달

광주비아농협(조합장 박홍식)은 지난 6일 명진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급식에 사용할 쌀 1000kg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쌀 소비량은 2013년 67.2kg에서 지난해 56.7kg으로 감소했다. 비아농협은 이에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식사 습관과 쌀 소비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박성근 명진고 교장은 "광주비아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쌀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들

의 식생활 개선을 도모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식 조합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의 교육 당국과 명진고 학생들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우리 쌀 소비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쌀 소비 확대 운동과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쌀 값 하락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